

이용섭 시장, 새해 첫 업무 최종증 발달장애인 돌봄기관 방문

돌봄서비스 점검·현장간담회 통해 의견 수렴

부모들, 최종증 발달장애인 필요했던 정책 감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휴일인 3일 오전 최종증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기관인 KTL주간활동서비스 제공 기관을 찾아 돌봄 서비스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자 및 부모들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이 시장이 새해 첫 현장 방문으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기관을 찾은 것은 2021년 새해에도 장애인 등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불편

없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이날 시설을 둘러보며 돌봄서비스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주간활동서비스 제공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돌봄서비스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

환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9월 ‘최종증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에 따라 올해 1월 2일부터 최종증 발달장애인 일대일 주말·휴일 돌봄서비스를 시작으로 3월부터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주간 활동 다중지원과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전담인력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주거모형을 도입해 행동수정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이 병원 입원, 애경사 등의 긴급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해 부모들의 부담

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발달장애인 전환지원팀을 신설해 광주지역 8000여명의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권리 향상과 지원을 전담한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종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업들을 빠르게 추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주거지원과 낮 활동 다중지원, 제공인력에 대한 체계적 교육 시스템 마련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용섭 시장은 “지난해 6월 3일 숨진 발달장애인 모자의 영정



앞에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면서 장애인 부모, 단체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더욱 꼼

꼼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여수지역자활센터, 자활성공수기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자활기업 ‘웰빙도시락’ 대표 정명숙씨 최우수상에 선정



여수시는 전남여수지역자활센터의 자활기업인 ‘웰빙도시락’ 대표 정명숙씨가 자활성공수기를 공모해 최고의 영예인 보건복지부장

관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정명숙 대표는 생활이 어려웠던 과거, 지인의 추천으로 찾아간 지역자활센터의 갖가지사업단에 참

여하게 되면서 동료들과 협력하여 매출을 올렸던 경험, 성실한 참여로 센터가 추천한 자활기업 대표를 맡게 되면서 공동체를 이끌었던 경험과 시행착오, 성공 노하우를 수기에 감동적으로 녹여냈다.

주위의 축하 인사에 정명숙 대표는 “제 일생의 한 부분을 있는 그대로 일기 쓰듯이 쓴 것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부끄러울 따름”이라며, “이게 다 옆에서 잘 지도해주신 여수지역자활센터 선생님들 덕분”이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기자

광주 광산구, 식약처 ‘노인급식안전’ 우수기관 선정

급식관리지원센터 모델 전국 확대하고 그간 노력 인정

광주 광산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노인급식 안전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식약처는,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들의 급식환경 개선과 건강한 식습관 정착을 목표로 노인급식안전관리사업을 실시했다. 전국 7곳 지자체에 사회복

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관련 사업은 한 해 전인 2018년 4월 광산구와 광주시가 먼저 시작했다. 두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 모델을 식

약처가 전국에 확대한 것이 노인급식안전관리사업이다.

광산구는 두 해 전부터 영양사가 없는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에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위생관리를 실시해왔다. 아울러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어르신 급식안전관리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형택기자

영암군, 기초생계급여 신청하세요

영암군은 올해부터 생계가 어려운 ‘노인·한부모 가구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1월 4일부터 15일까지 기초생계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생계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번 부양의무자 완화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가구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정책 가구 중 부 또는 모가 30세 이상인 한부모 가구로 해당 가구는 생계급여에 한하여 부양의

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고소득, 고재산(세전 연소득 1억원, 금융재산 제외 9억원 초과)의 부양의무자는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46만원, 의료급여 195만원, 주거급여 219만원, 교육급여 243만원 이하 가구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암=조대호기자

강진군, 코로나19 대비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강진군보건소가 지난해 12월 30일 국비 1억원을 들여 강진군보건소 부지에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했다.

이 시설은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의 환자에 대한 의료이용체계 정비를 목적으로 코로나19와 타 호흡기감염(감기, 독감 등) 구분이 어려운 코로나19 감염자 방문으로 인한 의료기관 운영 중단, 의료인 격리를 우려해 설치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과가 진료에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으로 진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한다. 호

흡기전담클리닉을 이용하는 환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